

WHERE ARE U?

내 · 가 · 선 · 자 · 리

주최 : 97 여학생 문화 포럼

주관 : 여학생처

GIRLS BE AMBITIOUS!!!

11월 13일(목) 신상대 강당 늦은 6:30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여자는 여대를 나와야 잘산다. 사회에 나가봐라. 판검사, 의사, 장관 부인은 다 E여대 출신이다.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잘사는 거다. 남녀공학 가봤자 여자애들은 몸만 버리기(???) 십상이야. E여대 가!' (실화임)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던 말던 나는 담임의 각본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담임과 싸웠고, 나는 남녀공학인 연세대학교에 들어왔다.

1년 반이 지난 2학년 2학기 수업에서 나는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연세대학교 여학생은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데 이대는 높아진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감을 잃는 여학생이 전체 연대 여학생의 60%란다.

왜???

여자선배가 없다는 아이들을 많이 본다. 이것은 우리들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가능한지를 알수 있는 통로가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남자들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잘사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하지만 아직도 분명한 건 담임의 이야기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그리고 그 고민을 당당하게 사회에서 풀어 나간 노하우를 지닌 우리들의 선배님들을 만나고 싶다.

김성주 선배님 : (주) 성주 인터내셔널 사장 : GUESS, 맥스 & 스펜서, GUCCI.... 다들 잘 아는 상표지만 우리 선배님이 사장님인 건 몰랐을걸???

김혜원 선배님 : MBC 애드컴 부국장

신현옥 선배님 : 여성의 지위를 확장 시키는 작업은 운동을 직업으로 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분은 운동을 생활 속에서 풀어 나가고 계시다.

역대총여학생회와 함께하는 10대 총여학생회 공청회

11월 14일(금) 장기원 기념관 늦은 6시 30분

총여학생회는 없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올 한해 잠시 총여가 없었던 것은 연세가 충분히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서였을까?... 설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연세에 없었죠? 한 해의 공백기를 가진 총여가 이번에 다시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대, 8대, 9대 총여학생회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총여학생회와 이번에 10대 총여학생회장 후보단이 생각하는 총여학생회의 모습은 어떻게 비슷하며 어떻게 다를 것인지, 혹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1대 총여학생회장 이은희 선배님

제 8대 총여학생회장 김은숙 선배님

제 8대 총여학생회 편집국장 태정은 선배님

제 9대 총여학생회 문화기획국장 임서진 선배님